



주간통일정세 2008-22(2008.05.26~06.0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2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나흘 연속 김정일 공개활동 보도(5/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의 홍남제련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5월 25일 제32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 보도에 이어 제1727사관양성부대와 제836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5.26), 제324군부대와 제60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5.28),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함흥의학대학 현지지도(5.29), 함흥시 영광군 백운산 유원지 방문(5.30) 소식 등 최근 거의 매일 김 위원장의 외부 공개활동을 보도
 - 김위원장의 홍남제련소 방문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기남 비서와 박남기 부장이 수행

- **김정일, 증조모 묘소에 생일화환(5/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증조모인 리보익의 출생 132돌을 맞아 31일 평양 만경대에 있는 묘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최영립 최고인민회의 서기장을 비롯한 당·군·정 관계자들이 참석

- **김정일, 함흥 인근 백운산유원지 방문(5/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의 영광군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백운산유원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백운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문화·편의봉사시설과 참관도로 등을 돌아보면서 “함흥시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유원지가 마련되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영광군내 인민들이 소문없이 큰 일을 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기남 비서와 박남기 부장이 수행

- **김정일, 함흥 의학대학 시찰(5/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함흥의학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대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 재능있는 의학자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며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의료 일꾼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교수방법



- 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박남기 당 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이명박 정부 100일 백서 발표(6/1, 조국통일위원회; 연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1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백서를 발표,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과 각종 대내외 정책을 강력히 비난
- 연구원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의 백서에서 “(이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죄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 이라면서 “100일간의 행적은 과거 친미독재자를 무색케 하는 반통일 대결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백서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방침을 “대미종속관계의 전면 부활”이라며 전시작전권 반환연기입장,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움직임,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미국 쇄고기 개방 등을 거론, 또 영어 몰입식교육을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미국화 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하고 외국인을 장관직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미국 상전이 고문으로 들어앉은 적은 있어도 장관직까지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꾸릴 것을 획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
- 조국통일연구원은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지는는데 근본 속셈이 있다”며 “이 구상은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 선언”이라고 지적

● 김정일 부인 김옥, ‘三男 후계’ 추진(6/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실상 네번째 부인인 김옥(44)씨가 후계구도 구축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일 “김옥씨가 ‘3대 세습은 안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삼남인 정운(24)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옥씨는 자신의 측근인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앞세워 이런 후계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보도
- 김옥씨는 그동안 후계자 지명을 서두를 경우, 김정일 위원장에게 레인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계문제 거론에 제동을 걸어왔음. 그러나 김옥씨는 “어차피 후계자를 정해야 하고 후계자는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명이 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일 나이가 어린 정운



을 후계자로 은밀히 선정해 물밑에서 준비를 갖춘 뒤 김 위원장에게 “깜짝 선물”로 내세우려는 하며 김옥씨와 리제강 제1부부장 세력은 특히 김정운을 후계자로 정하는 데 최대 걸림돌인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37)을 견제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정남과 친분이 있거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김옥씨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요 인사도 그의 손에서 이뤄지고 간부들이 그에게 줄서기 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 김옥씨의 막강 파워의 실례로 2007년 인민군 창건 75주년(4.25) 열병식 전날 최종 리허설을 지휘하고 2007년 김 위원장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모교인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 독일제 피아노 수십대를 보냈음. 당시 선물 행사 직후 관련 간부들은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번 선물이 김옥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내부 선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이명박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5/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실용주의 따위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은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는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동족 사이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로, 민족내부 문제”인데 이런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면서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적 폭거”라고 실용주의 전반을 비난
-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동유럽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써먹은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또 경제협력 4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행을 공공연히 중단시키고 있다”고 주장
- 상호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천명된 것과 같이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며 “북남협력 사업 역시 유무상통과 상부상조에 기초한 공리공영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또 ‘퍼주기’ 비판론에 대해서는 “퍼주기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며 “우리는 지난 시기 남측이 간청한 문제들을 대범하게 가능한 다 풀어줬고 남조선 인민과 기업가들을 위해 군사적으로 예민한 금강산지구와 개성지구까지 열어줬다”고 주장
-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 녀 동포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생활처지가 어렵게 됐을 때마다 동포에



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해 생색을 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부대조건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언급하며 “동족에 대한 인도주의 사업까지 주판알을 튕기며 정치적 부대조건과 대가를 내걸고 있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의마저 다 버린 냉혈한이고 돈 밖에 모르는 인간 추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난

● 北, 한미FTA 비준 동의 추진 맹비난(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거명하며 맹비난, 노동신문은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남조선이 덕볼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면서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 부과하는 이명박 일당과 재벌들에게나 차례지게 된다”고 주장

* 6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발표된 ‘논평원의 글’ 형식은 2000년 이후 손꼽을 정도로만 발표됐으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과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데 사용된 데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4월 1일에 이어 약 두달만에 다시 정부를 겨냥해 발표함. 이러한 형식의 글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각종 대남 인식과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임.

● 北, 한미 군사동맹 강화 비난(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위험한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민족 공조를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침략전쟁 정책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철도상, 철로 현대화 표준화 강조(5/24, 민주조선)

- 김용삼 철도상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원만한 철도 수송을 위한 철로 보강을 강조, 김 철도상은 민주조선(5.24)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 나라(북)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은 철도”라며 “기관차와 객화차에 대한 수리정비 사업을 잘해 그 성능과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또 현재 중요한 문제는 “콘크리트 침목과 용접 레루(레일)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침목을 콘크리트화하고 용접 레루를 받아들여 레루의 이음목 수를 줄여야 레루의 부담 능력을 높이고 철길에 생길 수 있는 이상 현상들이 더 잘 방지돼 열차가 더 많은 짐을 싣고서도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고 강조



●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5/28. 농협)**

- 노동신문은 28일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며 경제난 속 모든 분야에서 “절약 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 신문은 “우리의 경제적 토대와 밑천이 얼마나 은(효과)을 내는가 하는 것은 생산 정상화와 기술 개선(개선)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절약사업을 어떻게 벌여 나가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면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낭비 현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살이가 펴 수 없으며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없다. 절약이 생산이다”라고 주장

●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5/28, 연합)**

- 주로 평양지역에 난방용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의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컴퓨터자동화와 발전시설 증설에 착수

● **고려식품공장, 튀김과자로 스낵류 제패 (5/27, 조선신보)**

- 북한에서 옥수수, 보리, 밀가루, 감자, 녹말 등을 원료로 각종 튀김 과자류를 주로 생산하는 신생업체인 고려식품공장이 북한의 스낵 시장 석권은 물론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음.

● **北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현황(5/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북한 곳곳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며 현황을 소개, 원산청년발전소의 경우 완공 단계에 이르러 댐공사 마무리 작업과 1호발전소 압력관로 발전설비 조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발전소의 2단계 건설 현장에서는 물길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
- 예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는 1호청년발전소의 2호 발전기 조립이 끝나 시운전이 진행 중이며, 2호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무덤이뎌 취수구 콘크리트치기, 물길굴 굴착과 피복 등이 진척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라. 군사 관련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5/31, 연합)**

- 북한이 지난 3월에 이어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 북한은 30일 오전 평안남도 증산 인근 해상에서 사거리 46km의 옛소련제 스틱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
-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남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일단 북한 군이 6월까지 전투준비 판정검열(전투준비태세 검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데 주목,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서해상에 떠있는 함정에서 육상방향인 북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거리도 짧다는 점에서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하계훈련에 대비한 성능확인용 훈련으로 보



인다”고 언급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3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을 당시에 “북한은 겨울 내내 습한 창고에 보관했던 미사일을 따뜻한 5월이 되면 햇볕에 말린 뒤 성능시험을 위해 수 발씩 쏘 왔다”면서 “5월 되면 또 쏠 것이니 그때 가서 놀라지 말라”고 예고하기도 했다고 언급

● 北군사회담 단장, 南 ‘빠라’살포 중단 요구(5/30, 조선중앙통신)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대령)는 30일 남측에 전 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을 비난하는 ‘빠라(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박 단장은 통지문에서 “빠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을 중지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북남군사회담과 접촉에서 쌍방이 서약한 군사적 합의”인데 이명박 정부가 “군부와 우익 반공단체들을 동원해 우리의 체제와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반공화국 빠라 살포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
- 그는 “5월말 현재 기구와 대형 고무풍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빠라를 살포한 지역만 해도 황해남도과 개성시, 강원도의 군사분계선 인근 일대를 포함하여 수십개소에 달하고, 심지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통행도로와 관광지들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빠라를 살포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반동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반대하는 빠라살포 행위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반공화국(북) 빠라살포 행위가 동결상태에 놓여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사태로 몰아가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호전집단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은 2007년 5월과 7월 장성급회담 등에서도 남측의 빠라 살포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단을 촉구한 바 있었음.

● 北미사일 유도 방해 교란장치 개발(5/29, 연합)

-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첨단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을 교란할 수 있는 GPS 교란장치를 자체 개발해, 이란·시리아 등 중동지역에 이 장치를 수출하려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 당국이 포착

● 북한군 대규모 영농지원…사실상 훈련 중단(5/28, 연합)

- 북한군 병력이 대대적으로 영농지원에 투입돼 하계 군사훈련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28일 “북한 전·후방지역에 주둔한 북한군이 대규모 영농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면



서 “영농지원 수준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

● **北경비정, NLL 침범…17분만에 복귀(5/27, 연합)**

- 북한 경비정이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17분만에 복귀, 27일 오전 11시 13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쪽 NLL을 넘어 남쪽으로 2.1km까지 내려 왔다가 우리 측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 복귀했다고 합참이 밝힘.

마. 사회·문화 관련

● **기록영화 수편 제작(6/1, 평양방송)**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최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담은 기록영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앞으로’, ‘금진강을 다스리는 사람들’ 등 수편을 제작

● **국제아동절 기념행사 개최(6/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남한의 어린이날 격인 ‘국제아동절’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만경대유희장에서는 평양 시와 외국의 어린이 및 여성 간 친선모임이 열려 합창과 무용, 기악연주 등 예술공연과 공놀이, 줄넘기, 줄다리를 포함한 각종 오락경기가 진행
- 이 자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용진 교육상, 로성실 여맹 중앙위원장과 함께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가
- * 북한은 1950년부터 기념해온 국제아동절(6.1)과 더불어 만 7세부터 14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년단 창립일(6.6)도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로 삼고 있음.

● **농업기술서적 편찬(5/30, 조선중앙통신)**

- 농업출판사는 최근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논벼농사 참고자료’와 ‘토양의 영양원소평가’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채소 농사, 가축 사육, 감자 재배 등과 관련한 농업기술서적들도 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식량사정 어렵지만 아사자 없다(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전민이 떨쳐나 식량문제 해결을’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의 농업성 관계자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서방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선 “생활이 풍족하지는 못해도 인민들은 보다 좋은 미래를 안아오기 위해 분발하고 있다”며 강력히 부정했다고 소개



-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조선신보는 “식량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해마다 제기돼 왔지만 올해 양상은 예년과 자못 다르다”며 “오늘 국내(북한)의 식량사정은 긴장되고 있다”고 전하고, 조선중앙통신도 최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족되는 식량”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킴.
- 조선신보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시련을 결속(끝냄)한 후 대책을 강구해 2004년부터는 농업분야도 호전기에 들어섰”는데, 작년 여름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농업생산에서 피해가 확대”돼 그 결과 “2007년의 알곡 수확량은 2006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부족되는 식량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여기에 국가적인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전함. 특히 북한 농업성 김경일 책임부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전역에서 감자 농사 면적을 지난해보다 18% 늘였다고 말해 북한 당국이 6월말경 수확하는 감자로 임시변통할 생각임을 시사
- 김경일 책임부원은 현재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 “특히 비료 문제와 곡질, 축산배설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제적인 식량 파동까지 겹친 상황에서 비료를 자체 해결하는 문제는 긴박한 과업”이라고 토로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평양시 인구 감축 방침(제135호, 오늘의 북한소식; 5/30, 연합)

- 평양시는 “인구조사 정리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이 없는 대상자들을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발표
- ‘오늘의 북한소식’ 제135호에서 “평양시에는 집이 없어서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평양시 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 소식지는 “평양시는 그동안에도 주택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전기·물·난방의 소비량 등을 고려해 매년 직장 인원을 꾸준히 감축해 왔다”고 설명하고 “배급이나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따른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분석
- * 북한 당국은 신체가 허약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1차로 지방에 내려 보내며, 부부 한쪽이 지방 출신이거나 소소한 비법 행위에 걸려도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소식지는 설명

● 2008년부터 유치원서도 역사 교육(5/30, 조선신보)

- 북한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유치원에서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유치원 낮은반에서는 ‘이야기 시간’을 통해 을밀대와 단군릉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하고, 취학전 의무교육 단계인 높은반에서는 ‘우리말 시간’이나 ‘셈세기 시간’에 이순신 장군, 측우기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비료·비닐 부족에 이상저온까지 올해 작황 부진 예상(5/30, 연합뉴스)**

 -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 전투’에 돌입했지만 해마다 남쪽에서 지원받던 비료와 못자리용 비닐박막 공급이 끊긴 가운데 이상저온으로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 북한 당국은 모내기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을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공서도 최소 인원만을 남겨두고 모내기에 총동원돼 있는 상황
 -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2007년 사용한 비닐박막을 재활용해 못자리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 경우에 따라 못자리 면적의 3분의 1 정도만 온상을 만들어 모를 키우고 있는 형편, 또한 비료 부족은 북한의 올해 작황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주된 요인
 - 현재 북한의 쌀가격은 지역별로 북한돈으로 1kg에 3천원을 초과해 4천원대를 향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조선족 대북무역업자 김모(40)씨는 “개인 휴대품 명목으로 1인당 25kg 정도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갈 수는 있지만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쌀을 내놓지 않는 사재기심리에다 당국의 시장단속까지 맞물리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쌀값이 1kg에 10위안(북한돈 4천800원)까지 올랐다”며 “현재로서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외에는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라고 귀뜸

- **北 ‘푸에블로호’ 그림 우표 발행(5/29,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우표사가 ‘반미공동월간(6.25~7.27)’에 즈음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그려 넣은 새 우표(50×34mm) 1종을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600여년 만에 빛 본 ‘고려왕궁 만월대’(5/29, 연합뉴스)**

 - ‘황성옛터’로 알려진 고려왕궁 만월대는 고려 공민왕 10년(1361년) 홍건적의 난 때 소실, 정전인 회경전 등 주요 전각이 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폐허로 방치

- **평양 고려호텔 앞 식당가 ‘현대화’(5/27, 연합뉴스)**

 - 평양 고려호텔 앞길의 ‘고급 식당가’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 조선신보는 27일 “평양의 창광 음식점거리의 면모가 일신된다”며 “평양 역전과 잇닿아 있는 창광 음식점거리는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식당봉사지구의 하나로 현재 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의 개건보수 공사가 한창”이라고 소개, 창광거리는 평양 역전에서 시작해 고려호텔을 거쳐 노동당청사로 이어지는 거리로, 다양한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음식점들이 줄을 잇고 있음.

- **개성 송악소주 외국에 수출(5/26, 조선중앙통신)**

 - 개성의 특산주인 송악소주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중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개성송도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송악소주는 송악산 천연생물과도토리, 옥수수가 주원료이며 “향기롭고 유순한 맛”으로 북한에서 여러 차례 상과 메달을 받았다고 통신은 소개

● 北, 아리랑에서 ‘핵 아닌 비단 영변’ 묘사(5/26,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에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 ‘아리랑’에 핵시설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영변을 무대로 한 작품을 새로 넣어 올해 가을 공연할 예정
- 아리랑에서 영변은 핵시설 장소로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유명한 비단 생산지로서 등장, 조선신보는 26일 “2008년도판 아리랑의 특징은 다른 장면들을 단축해 2장 5경에 평안북도 녕변군을 무대로 한 작품을 삽입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이 곳이 핵시설의 소재지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비단 생산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이 “작품의 제목은 ‘녕변의 비단 처녀’”이며 그 취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생활 제일주의 방침을 예술적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김숙, 北핵신고서 거의 마무리 단계(6/1,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전날 회동에 대해 “상견례를 겸해 만나 6자회담의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밝힘. 또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고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미측으로부터 취해져야 할 2가지 조치와 상호 연관된 것으로, 미국측 준비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날짜에 (신고서 제출을) 하기로 했으며 아직 양측이 최종 조율중”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다만 북·미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 시기만 결정돼 있지 않을 뿐 큰 문제에 관해서는 다 해결이 돼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중요한 것은 신고한 내용은 모두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검증 기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신고된 내용은 자료와 현장 방문, 시료채취, 여러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
- 또 “6자회담의 가속화 차원에서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야로서



경제·에너지 분야 실무 의장국인 한국 입장에서 조만간 실무그룹 회의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의 재개일정과 관련, “6월 중에는 6자회담의 수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혀, 6월 중에는 6자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것임을 분명히 함.

나. 북·미 관계

- **北외무성, 美보고서에 “대화상대에 대한 모독”(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31일 북한을 폐쇄되고 군사화된 사회로 규정한 미국 국무부의 ‘자유·민주주의 신장 보고서’를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비난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미 국무부는 2008년 ‘자유 및 민주화 추진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자기의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낸 독선적인 문서장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폐쇄’니, ‘고도로 군사화된 사회’니, ‘독재국가’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하고 “핵문제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 들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시비중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평양교예단, 中각지 성황리 공연(6/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인 서커스단인 평양교예단이 중국의 전장(鎮江), 항저우(杭州), Ningbo(寧波) 등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의 격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평양교예단의 중국 순회공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연장소가 관중으로 언제나 초만원에 이르렀으며 공연이 끝날 때마다 수많은 각 계층 인사와 시민이 공연 성과를 열렬히 축하했다면서 공연을 관람한 중국 인사들의 소감도 전달
- **中투먼시의 새 명물, 北국경 통과 도보관광(5/30, 연합)**
 - ‘걸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는다.’ 그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서만 북중국경을 넘을 수 있었음. 그러나 5월 22일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서 북중국경을 도보로 통과해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는 관광이 개시돼 향후 투먼시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떠오를 전망
 -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4월 29일 투먼시에서 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먼-남양 도보관광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5월 22일 중국인 관광객 30명이 처음으로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 북한의 남양시를 둘러보고 돌아옴.



- 투먼시는 90년대부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도보관광 개통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숙원을 풀 수 있었다는 후문, 투먼시 투먼강(圖們江)국제여행사에서 독점 판매하는 이 관광상품은 오전 9시 투먼세관을 출발, 북한의 남양세관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뒤 남양역, 김일성동상, 김일성-저우바오중(周寶忠) 상봉기념관 등 남양시내를 둘러보고 오전 11시30분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2시간 30분 일정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회만 진행되는 국경통과 도보관광 비용은 150위안(약 2만3천원),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국인은 국경통과 도보관광을 할 수 없으며 중국인도 변경통행증을 받을 수 있는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하다”고 소개

● 北주재 中대사, 모내기 동참(5/29, 조선중앙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29일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북중친선 택암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돕고 지원물자도 건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선 인민은 공화국(북한) 창건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면서 “중·조(북) 친선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라. 북·러 관계

● 北, 국제러시아어경연 참가 10명 선발(5/29, 조선신보)

- 6월 23~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12차 국제학생러시아어 올림픽경연에 북한에서 10명이 참가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북한은 이를 위해 2002년 월별 선발대회를 열어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평양외국어학원의 강윤미(16세, 6학년(졸업반)) 양을 포함, 13~16세 학생 10명을 선정

마. 북·일 관계

● 北, 적군파 추방형식으로 日 인계 방첩(5/27, 연합)

-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을 삭제하는 조치에 착수할 경우 1970년 항공기 요도호를 끌고 북으로 간 적군파 요원 3명을 추방하는 형식으로 북한 영토 밖으로 내보내고 이후 일본이 이들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국제신뢰 원하면 과거청산 수행(5/27, 연합)

- 노동신문은 27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일제 피해에 대한 “성근한 배상”을 촉구



- **北, 인민의 對日 적개심 하늘에 닿아(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영토강탈 책동”이라면서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일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 “과거문제를 외면해 버리고 남조선과 일본의 ‘미래지향’을 운운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민족을 배신하는 역적행위였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바. 기타외교 관계

- **駐北 몽골대사 농사지원(5/30, 조선중앙통신)**
 - 소도브잠츠 쿠렐바타르 북한 주재 몽골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30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북-몽골 친선 정방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돕고 지원물자도 건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보도

- **노동신문 ‘비핵·개방 3000’ 통일차관 연설 비난(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측 상주인력을 퇴출시킨 데 이어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지목해 그의 남북관계에 관한 연설을 비난
 - 신문은 26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의 통일부 차관이라는 자가 북남관계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지껄었다”며 “그는 ‘비핵·개방 3000’이 우리의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이라느니, 남북관계의 실천전략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인 듯이 분칠했다”고 주장

나. 남북교류

- **6·15기념행사 유럽·美·日서도 개최(6/1, 민족통신; 연합)**
 - 6·15공동선언 채택 8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금강산 6·15민족통일대회(6.15~16)와 함께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도 열린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유럽지역 동포단체는 6월 6~14일 독일 에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6·15공동선언 8돌 유럽동포 통일축전’을 개최
- **남북 교육자회의 금강산서 개최(5/30, 조선중앙통신; 연합)**
 - 제2차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가 5월 29~30일 금강산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교육자들이 이번 회



의를 통해 “어떤 환경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저촉되는 온갖 법적·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 회의에는 남측에서 정진화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단이, 북측에선 교육자직업동맹이 참석, 2005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제1차 회의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표단도 참석했었으나 이번 회의에는 불참

● 부산서 北 긴급지원 밀가루 200t 선적식(5/27, 연합)

- 27일 오후 부산항 3부두에서 국제구호단체인 JTS가 북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밀가루 200t(1억5천만원)을 선적하는 행사를 가짐.

● 北청소년에 농구공 3천개 전달(5/27, 연합)

- 한국농구연맹(KBL)과 남북평화재단은 27일 북한의 중학교(중·고교 과정) 학생들이 사용할 농구공 3천개를 북측에 전달

● 정부, 대북 설비자재 89억원상당 지원(5/26, 통일부)

- 정부는 5월 29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89억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통일부가 26일 발표, 이에 따라 89억원 상당의 전기동(구리) 1천t 이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항-남포항 경로로 북한에 배송

4. 주요동향 개요

● 김정일 함흥 근처 체류

● 대남비방 계속

- 신문 논평원의 글 2탄
- 남한의 대북 뼈라살포 중단요구 전통문

●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법 윤곽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숙 “北, 핵신고서 거의 마무리...美시간 필요”(6/1)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관련,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미측으로부터 취해져야 할 2가지 조치와 상호연관된 것으로, 미국측 준비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날짜에 (신고서 제출을) 하기로 했으며 아직 양측이 최종 조율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본부장은 “굳이 따진다면 미국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북한은 거의 준비가 다 돼있다”면서 “미국은 1만8천쪽에 달하는 (북한이 제출한) 핵 관련 자료에 대한 실무적이고 전문적 검토와 절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북·미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 시기만 결정돼 있지 않을 뿐 큰 문제에 관해서는 다 해결이 돼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 김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신고한 내용은 모두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검증 기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신고된 내용은 자료와 현장 방문, 시료채취, 여러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본부장은 이어 “북한 김계관 부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올들어 6자회담 과정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6자회담의 상황을 좀 더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 그는 또 “6자회담의 가속화 차원에서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야로서 경제·에너지 분야 실무 의장국인 한국 입장에서 조만간 실무그룹 회의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의 재개일정과 관련, “6월 중에는 6자회담의 수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혀, 6월 중에는 6자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북·일간 현안에 대해 김 본부장은 “양자 현안 문제가 전체적인 6자회담의 의제를 압도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양자 현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6자회담의 커다란 목표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부토, 1993년 北에 UEP 중요자료 전달”(6/1)

 -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1993년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북한과 미사일 거래를 위해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UEP)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넘겨줬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인도 언론인 시암 바티아가 지난 2003년 부토 전 총리와 가진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 달 인도에서 출간한 저서 ‘안녕, 부토 총리(Goodbye Shahzadi)’를 인용 보도
 - 바티아는 저서에서 부토 전 총리가 지난 2003년 인터뷰에서 “적어도 그녀가 숨지기 전까지는 밝히지 않기로 약속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했다”면서 부토 전 총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

- “北 플루토늄 37kg 생산...美추정과 달라 논란”<NYT>(6/1)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제출한 1만8천쪽 분량의 핵 자료에 관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분석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언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37kg(81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혔음을 내비치고 있음. 이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30kg보다는 많은 것이지만 미 정보기관들이 전에 추정했던 40~50kg 보다는 적은 것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통해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돼왔음.
 -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 사람은 정부 내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무부 관계자들은 7박스 분량의 북한 핵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美국무부 “프리처드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5/31)

 -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이 북핵 3단계에서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잭 프리처드 한미 경제연구소(KEI) 소장의 발언에 대해 “프리처드 소장은 도대체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냐”고 비난
 -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협상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양 말함으로써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북핵 3단계 과정, 장기화 전망”<조선신보>(5/30)

 - 북핵 10.3합의 이행의 완결과 6자회담의 재개,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의 책정과 시작은 “시간 간격없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다음 단계’의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에 “(3단계에선) 각 측의 행동과정도 종전과 대비하면 보다 장기성을 띠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30일 전망



- “北 냉각탑 폭파는 핵폐기 첫걸음에 불과” <中언론>(5/30)

 -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신문은 선딩리(沈丁立)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냉각탑 폭파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선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은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이미 확보한 플루토늄, 플루토늄 기반의 기타 핵시설, 우라늄 기반의 비밀 핵계획 등 4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핵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은 이들 4개 분야를 전부 검증받고 없애는 것이며 냉각탑은 단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핵시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

- “北 ‘3단계엔 플루토늄 핵시설 해체만 해당’ 입장” <프리처드>(5/30)

 -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모두 폐기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는 ‘북핵 3단계’에는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 해체만 해당되며 핵물질과 핵무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29일 주장.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 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6자회담 관련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 1기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대북협상대표를 지내기도 한 프리처드 소장은 “30일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협상 중이던 북한 측 일행이 북핵 3단계의 대상은 플루토늄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즉, 북한은 경수로 제공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3단계에서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폐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사일 문제나 북한인권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한중 6자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5/30)

 - 한국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차기 6자회담 개최시기와 북핵 신고 문제 등을 협의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저녁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의장국인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북핵신고 및 신고 이후 핵 검증 방안 등을 논의
 - 이날 정오께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첫 회동을 가진 김 본부장은 6자회담 의장인 우 부부장에게 남북 회동 결과를 비롯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담 결과 등을 설명

- 북-미, ‘북핵검증 방안’ 마련키로(5/30)

 - 외교 소식통은 30일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북한의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협의



가 있었지만 워낙 전문적인 사안이 많아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 전문가들에게 추가 논의를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는 이르면 다음 주에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고 검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장소는 평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미 전문가회의에서 검증 메커니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곧이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이를 6자의 합의사항으로 추진할 계획

● 북핵 신고前 6자수석대표 회담 가능성(5/29)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러시아로 출발하기에 앞서 베이징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조만간 개최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의장국인 중국이 수석대표 회담 개최가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29일 “기술 회의는 미국과 북한 인사들로 구성되지만 시간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6월 초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힐 차관보는 연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계획과 관련, “올해 말 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갈 때 갖고 갈 전체적인 시간표를 얻어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 김 숙 본부장-힐 차관 모스크바서 회동(5/29)

-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기로 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양국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한 식당에서 저녁을 겸한 회동을 가질 예정
- 김 숙 본부장은 이날 보로다브킨 차관에게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북측의 핵 신고 진행 상황과 핵폐기 3단계 협상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 한편 김 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날아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날 예정

● 해들리 “北, 핵무기 생산위한 다른 대안도 포기해야”(5/29)

-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고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신고와 함께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다른 어떤 대안도 포기할 것을 촉구
- 해들리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위기에 대해선 6자회담을 통해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의 플루



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시설들을 불능화하고 있다”고 6자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북한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검증가능한 신고를 포함해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해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다른 대안도 포기하는 등 다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미국)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역설

● **김계관-힐, 주중 미대사관서 북미회담 시작(5/27)**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7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북한의 핵 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양자 회동에 들어갔다.
- 힐 차관보는 이날 먼저 도착한 김계관 부상과 베이징 모처에서 북미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신고에 관한 추가 논의를 비롯해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 중 하나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 **“힐-김계관 오늘 오후 베이징서 회동” <美관리>(5/27)**

-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베이징(北京) 북·미 회동이 27일 오후 열릴 예정
- 미국의 한 관리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측 파트너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힐 차관보도 전날 김계관 부상과의 회동 계획을 확인했음.

● **中 “6자회담 당사국과 개별회동”(5/27)**

- 중국은 러시아를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북한, 미국, 일본과 개별적인 수석 대표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진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음.
-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등 당사국 4개국과 연쇄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중”이라고 말했음.

● **“美 대북정책 변화 주도 힐 차관보” <WP>(5/26)**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대(對)북한 정책을 ‘대치’에서 ‘화해’로 180도 바꾼 데는 지난 3년 간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 판이 26일 보도
- 특히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인한 북한 핵폐기 협상은 부시 행정부 말년 최대의 외교적 성과로 떠오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평가



- “美, 北核 관련자료 IAEA에 제공 계획”(5/26)
 - 미국은 북한이 제공한 핵 관련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들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주간 협의를 통해 중국 측 및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이같은 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핵신고서 내주께 제출 전망”...내달말 6자 장관회담 가능성(5/26)
 - 북한은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베이징(北京) 북·미회담 이후인 내주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6자회담이 재개된 뒤 북한의 신고 내용 검증방안과 비핵화 3단계(핵폐기)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되면 6월 말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美 정보당국자 “김정일 이상설은 소문일 뿐”<RFA>(5/31)
 -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프 디트라니 부국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설에 대해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했다.
 - 그는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세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부친 김일성이 자신(김정일)을 후계자로 키워왔듯이 그런 구도에서 후계문제를 생각해왔을 것”이나 “북한에는 군부, 국방위원회, 원로지도자, 매제(장성택)도 있고, 다른 주요 인사들도 있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분명 신경쓰이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美, 내달 태국내 탈북자 일부 입국 허용”<RFA>(5/30)
 - 태국 내에서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1년6개월만인 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했다. 이 방송은 태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태국내 탈북자 30여명가운데 지문확인 등 절차를 마친 일부가 내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 “美, 전량 미국산으로 北에 식량 지원” <RFA> (5/29)

 -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데이비드 스나이더 대변인은 2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보내는 식량은 모두 미국산”이라며 “이는 현재 미국 농무부에서 운영하는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기금’을 통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의 스티브 길 국장도 RFA와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 식량 50만t을 미국에서 마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재 충분히 비축된 밀 외에 국제개발처가 요청한 다른 곡물을 구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밀 비축분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USAID가 1차 선적분을 밀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어 6월 첫째 주부터 밀을 선적할 예정이고 곧이어 옥수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식량지원 전문가회의 5.30~6.2 평양 개최” <VOA> (5/28)

 - 2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WFP) 워싱턴 지부의 제니퍼 파밀리 대변인은 “전문가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북 식량지원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에 앞서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표단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국장도 전문가회의가 30일 시작된다며 회의 참석을 위해 28일 북한으로 떠난다고 밝혔다.

- WFP, 北 식량분배 감시 '05년 수준 복원 기대(5/28)

 - 세계식량계획(WFP)은 미국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의 투명한 분배를 위해 북한내 분배 감시체제가 2005년 수준으로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
 - 그는 2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번주 평양에서 열리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분배과정 감시기준과 접근지역, 감시요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최종합의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매케인 “北核 종식은 국가적 중대 관심사”(5/28)

 -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콜로라도 덴버 대학 연설을 통해 미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군축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종식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밝혔다.
 - 매케인은 “북한은 오늘날 독재자 김정일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수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게 거의 확실한 지점에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핵과 미사일 노하우를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종식시키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역설



● **매케인, 부시 대북협상 자세 비판(5/27)**

-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자세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자와 조건없는 협상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
- 매케인은 27일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상원의원과 함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기고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쇄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관계 강화,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중투먼시의 새 명물 '北국경 통과 도보관광'(5/30)**

- 그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서만 북중국경을 넘을 수 있었지만 지난 22일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서 북중 국경을 도보로 통과해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는 관광이 개시돼 향후 투먼시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떠오를 전망
- 투먼시 투먼강(圖們江)국제여행사에서 독점 판매하는 이 관광상품은 오전 9시 투먼세관을 출발, 북한의 남양세관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뒤 남양역, 김일성동상, 김일성-저우바오중(周寶忠) 상봉기념관 등 남양시내를 둘러보고 오전 11시30분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2시간30분 일정으로 구성돼 있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회만 진행되는 국경통과 도보관광 비용은 150위안(약 2만3천원)

라. 일·북 관계

● **힐, 北에 日人 납치문제 전향조치 촉구(5/28)**

-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 북한측도 공감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소식통들은 베이징 회동이 끝난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 2단계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핵신고 목록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6자회담의 진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맞물려 미국이 취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 진행

● **北 “납치피해자 수명 생존…귀국시킬 용의” <마이니치>(5/27)**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북한이 납치 피해자로 보이는



일본인이 “아직 여러명 국내에 있으며 귀국시킬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7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밝힌 인물들은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2명과는 별도로 보임.

- 북한이 미국에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은 납치 문제의 ‘진전’을 내세워 미국에 의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실제 귀국하게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 “납북피해자 메구미 94년이후도 생존” <마이니치>(5/26)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납치 당시 13세)가 북한측이 자살한 것으로 주장한 199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 26일 보도
- 신문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인 지무라 후키에(地村富貴恵, 52)씨가 일본 수사당국에 “1994년 6월에 북한내 본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를 왔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메구미가 1994년 4월 자살했다는 북한측의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무라씨는 당시 메구미가 우울증 증세가 상당히 심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북한의 대외정보조사부(현 35호실) 간부가 간병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기타

● “북한산 필로폰 필리핀에 대량유입” <비관리>(5/31)

- 디니시오 산티아고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 국장은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비밀공장에서 생산된 고순도의 필로폰이 대량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해 kg당 600~800만 페소였던 필리핀 내 필로폰 거래가격이 지난 몇 달 사이에 300만 페소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 산티아고 국장은 “최근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싣고 필리핀 수빅항에 입항하려다 검거된 사건과 관련 필로폰의 출처가 북한 내 비밀공장인 것으로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외국의 마약당국들로부터도 북한산 마약이 아시아·태평양 각국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게이츠 美 국방 내달 2일 방한(5/29)

-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2일 방한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이상희 국방장관과 조찬을 겸한 회담을 할 예정”이



라면서 “게이즈 장관과의 회담은 이 장관 부임 후 처음”이라고 밝혔음.

-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추가 감축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롯,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한국 PSI 가입 기대” <美고위관리>(5/28)

- 미국 정부는 올해로 출범한 지 5주년을 맞이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 정부가 공식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27일 밝혔음. 존 루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이날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가진 PSI 출범 5주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미국 정부)는 한국에 PSI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음. 또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음.

● 힐러리도 韓·美 FTA 강하게 비판...부시에 서한(5/27)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를 미국 의회에 요청하기 전에 우선 한국의 미국 무역관련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음.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에 강력 반대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데 이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도 한·미 FTA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섭에 따라 한·미 FTA가 올해 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 의회에 따르면 힐러리는 지난 21일 다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미시간주 출신 데이비 스테이브나우 상원의원 주도로 작성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미 FTA 관련 서한에 서명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공동성명...한중일 정상회담 순환개최 추진(5/28)

- 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오후 양국간 관계 격상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
- 성명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관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적극 검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담고 있음.



● **李대통령 “한중 전략관계 北에도 유익”(5/28)**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관련, “남북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모르나 길게 보면 북한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못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
- 이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체결한) 몇몇 나라가 있지만 남북 관계에 비춰볼 때 파격적으로 관계가 격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한중 양국간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中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5/27)**

-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국의 정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국은 국가간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노력 아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 전략적 관계 구축...FTA 적극 검토(5/27)**

-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적극 검토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
- 양국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채널이 확대 가동됨. 또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음.
- 두 정상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및 금융경제 범죄 방지, 기후변화 대처 문제 등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음. 아울러 ▲이동통신 ▲원전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양국 청소년 상호초청을 활성화 하는 데도 합의



- 두 정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대학원 이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와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수형자에 대해 양국 동의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이송조약, 극지 과학기술 협력강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

● **李대통령 중국 방문 의미와 성과(5/27)**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간의 27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새 정부가 한미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 이날 ‘끈끈한’ 우의 과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평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기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있음.
- 양 정상은 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제, 더 나아가 범세계적 이슈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비핵·개방·3천구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음.

● **李대통령, ‘조문외교’에 각별 신경(5/27)**

- 한중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이지만 이웃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으로 참사를 입은 중국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복구지원을 약속하며 최대한의 ‘성의’를 보임.
- 우선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트랩을 내려오기 전 영접 나온 환영객들을 위해 손을 흔들지 않았다. 외국순방시 보통 대통령이 트랩 위에서 손을 한 번 흔들고 내려오는 것이 관례지만 중국측의 지진피해를 감안, 일부러 손을 흔들지 않은 것임.
-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지진피해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음.

● **이명박정부, 미·일·중과 관계설정 마무리(5/27)**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작업이 마무리됐음.



-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새 관계는 ‘21세기 전략동맹’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세대 개척,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요약됨.
-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1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주류사회의 대표적 친한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연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한다”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
- 이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신시대 개척’을 이끌어 냈음.
-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의 지표로 설정하고, 한중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느껴짐.
- 한국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공감한 새로운 관계는 ▲한미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찍으며(일본)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인 관계로 격상하자(중국)는 것으로 요약됨.

● 李대통령 “中, 남북통일에 큰 역할할 것”(5/27)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중국은 남북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중국 런민(人民)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도 가장 좋고, 또 대한민국과도 가장 가까운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또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좋은 관계는 동북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고 특히 중국이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동북아 여러 국가들과 공존·번영하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이웃나라에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李대통령 中인민일보 인터뷰…“한중관계 진일보 희망”(5/27)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싣고 이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의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국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양국이 수교 16년만에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양국은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중일, 14일 도쿄서 외교장관회담 개최(6/1)

- 한·중·일 3국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 3국간 교류협력방안을 포함해 지역 및 국제문제,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예정
-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처음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를 점검하고 역내 인적교류 활성화와 관계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일본에서 회담을 열게됐다”면서 “3국 외교장관회담의 제도화는 동북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어젠다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어젠다와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특히 현재 핵 신고문제로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과 최근 쓰촨성 지진 피해 지원 및 베이징(北京) 올림픽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한일, 5일 도쿄서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6/1)

- 한·일 양국은 오는 5일 도쿄(東京)에서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해 지역 및 국제 문제, 북한 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예정
-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전략대화의 목적은 양자 현안 외에 글로벌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독도 문제 등도 논의하겠지만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닌 만큼 양국의 입장이 교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음.
- 지난 4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는 오는 12일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오를 의제가 조율되고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교환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강화 방안’ 논의(5/31)

- 이상희(李相熹) 국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상은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군사협력은 물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음.
- 제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두 장관은 이날 회의 장소인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일관계 발전에 상응해 국방분야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 특히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환태평양훈련(RIM PAC) 뒤 3국간 인도적 차원의 공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 2002년 이후 중단된 3국간 안보토의 연내 재개 등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한·러 관계

● “한-러 관계, 실질적·포괄적 협력 중요” <한-러 포럼>(5/26)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29-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9차 한·러 포럼에 앞서 26일 주최 측에 제출한 주제 발표문에서 “한·미 동맹, 남북 분단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러 양국 관계를 현재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맺은 ‘행동계획’과 6자 회담, 정상회담,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상호 접목시키면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격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그는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등 고위급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러 6자회담 대표 “비핵화 공조 강화키로”(5/29)

-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만나 북핵 현안을 협의.
- 양국 대표들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신고 단계 마무리 및 핵 폐기 3단계 협상 개시 등 북핵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양국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음. 김 본부장은 이날 보로다브킨 차관에게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가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북측의 핵 신고 진행 상황과 차기 6자회담 일정 등을 협의
- 김 본부장은 이어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발, 30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날 계획. 한편 힐 차관보는 30일 오전 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만남 예정

● 한-러 외무 차관,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 논의(5/27)

-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27일 모스크바를 방문, 안드레이 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날 오전(현지 시간)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자리를 함께 한 양국 차관들은 한·러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시기 등을 논의
- 한편 권 차관은 29일에는 스웨덴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국제협약’ 점검 회의에 참석, 이라크 재건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며, 30일에는 프랑스 외교차관과 만나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



는 한-EU 정상회담 일정과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을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

마. 미·중 관계

● 中美 정상들, 유가급등·식량위기 유엔특별회의 촉구(5/31)

- 브라질과 중미지역 경제블록인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이 국제유가 급등세 및 식량위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특별회의 소집을 촉구했다고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이 30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SICA 8개국 정상들은 전날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서 열린 브라질-SICA 정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 SICA에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룰라 대통령과 SICA 정상들은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식량가격 폭등이 개도국 및 빈곤국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특별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 미·일 관계

● 美-日, 쌀값 안정 신속공조 합의(5/26)

- 미국과 일본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공조기로 합의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이 밝혔음. 대변인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두 나라 관리들이 회동한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필리핀이 요청한 20만t의 쌀을 비축미에서 방출하는 문제를 일본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음.

사. 미·러 관계

● 美-러 6자회담 대표 모스크바 회동(5/30)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를 지금 단계에서 명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북한의 신고서 내용도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날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회동을 갖고, 6자 회담 진전 문제를 협의
- 힐 차관보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 계관 북한 외무성 부부장,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아주국장 등 3개국 수석대표와 연쇄 접촉을 가진데 이어 29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음.



- 힐 차관보는 “러시아를 비롯한 당사국들이 비핵화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2차 중유 공급에 대한 선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로다브킨 차관은 “북핵 6자회담 협상 진전에 미·러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까지는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 기타

● **李대통령 “한·아랍 상생의 길 모색해야”(5/26)**

-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아랍 소사이어티(KAS)’ 창설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및 아랍권의 고위 관계자 1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한국과 아랍은 서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교역과 경제협력이 증진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서 강조. 이 대통령은 지난 1970년대 우리 기업들의 중동 건설현장 ‘진출 붐’에 언급, “당시 벌어들인 오일달러는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아랍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아랍인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
- 이 대통령은 이날 창설된 한·아랍 소사이어티와 관련, “정치와 경제는 물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랍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표현”이라면서 “양측 인사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

●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 국제회의 개최(5/26)**

-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아랍권 유력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다음달 말 공식 발족하는 한·아랍 소사이어티는 아랍동맹 회원국 22국이 참여해 한국과 아랍 국가들 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알-바쉬르 수단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의 선진 경제와 아랍의 풍부한 자원 간에 경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측의 상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도 필요하다”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평가

● **李대통령,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회담(5/26)**

-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오마르 구엘레 지부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양국 관광·문화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 오후 알-바쉬르 수단 대통령을 접견하고 아프리카 5위 석유 매장국인 수단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및 양국 교역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아랍권 22개국이 참여하는 ‘한·아랍 소사이어티’는 양측간 이해증진 및 문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재단법인으로, 이날 국제회의에 이어 다음달 중순 발기인 대회를 겸한 임시이사회를 구성한 뒤 내달말 창설이사회를 열고 공식 발족할 예정

● 한·터키 군사교류회의 27~28일 개최(5/26)

- 한·터키 군사교류회의가 27~2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합참이 26일 밝혔음. 양국은 이계훈(공군 중장) 합참차장과 에르킨 사이군(육군 대장) 터키군 부총사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군사교류 및 협력과 중·장기 방산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 특히 사이군 부총사령관은 양국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27일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는다고 합참은 전했다.

[참고자료 1] 역대 한중 정상회담 일지(5/26)

- ▲ 1992.9.28 = 노태우 대통령 방중, 양상쿤(楊尙昆) 주석과 회담
- ▲ 1993.11.19 = 김영삼 대통령, 미국 시애틀 APEC 정상회담 계기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회담
- ▲ 1994.3.28 = 김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 1994.11.14 = 김 대통령,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 1995.11.13 = 장 주석 방한, 김 대통령과 회담
- ▲ 1996.11.24 = 김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 1997.11.24 = 김 대통령, 캐나다 밴쿠버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 1998.11.12 = 김대중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 2000.9.6 = 김대중 대통령, 미국 뉴욕 유엔 새천년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 2001.10.18 = 김 대통령 방중, 장 주석과 회담
- ▲ 2002. 10.27 = 김 대통령, 멕시코 로스카보스 APEC 정상회담 계기 장 주석과 회담
- ▲ 2003.7.7 = 노무현 대통령 방중,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회담
- ▲ 2003.10.19 = 노 대통령, 태국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 2004.11.19 = 노 대통령, 칠레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 2005.5.8 = 노 대통령, 러시아 모스크바 전승 60주년 기념식 참석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 2005.11.16 = 후 주석 방한, 노 대통령과 회담
- ▲ 2006.11.17 = 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7.9.7 = 노 대통령,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2007.11.20 = 노 대통령,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담 계기 후 주석과 회담

* 출처(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5/26/0503000000AKR20080524047600001.HTML>

[참고자료 2] 한중정상 공동회견 李대통령 발언 요약(5/27)

중국이 한국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 칭다오(靑島)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을 수 있다는 속담이다.

오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높인 것은 미래를 향한 역사적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저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처음 뵈었지만, 회담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의 국민 초청 방문은 취임 이후 중국이 처음이다. 본인과 한국대표단 일행을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후 주석과 중국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쓰촨(四川) 대지진 참사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러나 후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의 단합된 힘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리라 확신한다. 다가오는 베이징(北京)올림픽 또한 세계인이 하나되는 축제로 성공리에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 나와 후 주석은 한·중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동북아지역 및 국제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나는 후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이 '창조와 실용의 치(治)'라는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두 정상은 이러한 양국관계 발전을 구체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심도있는 대화를 갖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금융협력 강화 등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동통신, 금융, 원전건설,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과학기술, 환경분야 협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중FTA(자유무역협정)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청소년 초청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6자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있어 한중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나는 중국측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역할을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나는 후 주석이 조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고, 후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나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으며, 후 주석의 요청에 따라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5/27/0503000000AKR20080527180200001.HTML>

[참고자료 3] 한중정상 공동회견 후주석 발언 요약(5/27)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언론계 친구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한다. 방금 전 나와 이 대통령은 성의있고, 우호적이고, 내용이 풍부한 회담을 가졌다.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대해 깊이있고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수교 16년 이래 공동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관계를 이뤘다. 우리는 각 분야, 각 차원의 교류협력이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국제와 지역에서도 좋은 협력을 유지해왔다. 양국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서있고 새로운 발전기회에 직면해 있다. 양국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첫째, 양국 고위급 왕래와 각 레벨의 친선교류를 유지하고, 외교당국간 전략대화 관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양측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둘째, 양국 경제통상 협력에 관한 중장기 보고서를 조정·보완하고, 경제, 무역, 투자, 환경보호, 물류, 통신 산업, 원전산업 등 중점분야에서 호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연구를 추진하고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셋째,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장해 우호의 기초를 굳게 다진다. 특히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양국 우호를 위한 역군을 육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넷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유지, 지역협력, 유엔 개혁, 기후 변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 및 세계평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나와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9.19 공동선언에서 확정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제2 단계 추진에 협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자 남북 양측의 친구로서 중국은 남북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중국은 한국이 쓰촨(四川)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 중국에 대한 지원과 동정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베이징(北京)올림픽에 힘있는 지지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이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길 원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올림픽에 오길 바란다.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한다. 이 대통령이 내게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연내에 양측이 다 편할 때 한국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05/27/0503000000AKR20080527206700001.HTML>

 국제관계연구실 제공